

# 생산부터 창업까지... '해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올해 스마트윈에단지 기반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도 연계 추진  
고부가가치 품목 다변화 도모  
스마트 저장·물류체계로 경쟁력 ↑

해남군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해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핵심 사업은 삼산면 일원 농업연구2 단지에 조성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다. 오는 2029년까지 총 18.6ha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주요 시설로는 ▲ 임대형 스마트팜 ▲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 채소류 종자생산단지 ▲ 기업 연계형 과수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재정 부담은 낮추면서, 생산·유통·교육·창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미래형 농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총 103억원 사업비 중 국·도비 52억원을 확보해 올해 스마트윈에단지 기반 조성에 착수하며, 총 200억원 중



해남군 신청사.

/해남군

국·도비 130억원을 확보해 오는 2027년부터는 4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들에게 현장 실습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단지 내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와 연계해 아열대 작물 등 고부가가치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저장·물

류 체계를 구축해 유통 경쟁력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해남군은 농업연구 1·2·3단지 전체(약 55ha)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간소화와 공유재산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민간 투자와 관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남군은 올 하반기 착공하는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라남도

특화과수지원센터, 농업연구 1, 2, 3단지 등 연관시설을 집적화해 국내 최대 규모 군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총 82ha 규모로, 1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등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군은 농업연구단지의 본격 조성과 가동을 통해 노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청년농 확대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농업은 청년이 돌아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전략"이라며 "국도비 비중을 높인 단계적 추진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부터 유통, 창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농어촌수도 해남의 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6개월간 대중교통비 환급 강화

울산시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한시 확대 시행에 발맞춰 추경을 통해 시비를 긴급 투입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월 대중교통비 지출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의 기준금액이 50%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일반은 기준 5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청년·2차녀·어르신은 5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3차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부산시

#### 반려문화공원 행안부 심사 통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공원은 기장군 철마면 구철리 일원 24만 1000㎡ 부지에 시비 433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동감문화센터, 동감둘레길, 글로벌테마정원, 동감놀이터, 펫교육장, 반려식물원, 로컬마켓거리 등 반려문화 특화 시설이 들어서며 교육·체험·휴식·치유 기능을 한데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 소방차량 접근 내비게이션 안내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긴급 출동하고 있는 소방 차량의 접근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도로 주행 중 후방에서 소방 차량이 접근할 경우 출동 상황과 거리 정보를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으로 즉각 안내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팝업과 음성 알림을 통해 소방차량 접근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빠르게 진로를 양보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작동 여부까지 함께 안내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북도

####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완료

경북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총 3575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 낙석, 전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사면과 급경사지, 저수지, 용벽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과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등 1873명이 참여해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 영양군, '교통 사각지대' 탈출한다 국도31호선 선형개량공사 본격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최종 개찰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  
2033년까지 국비 1068억 투입

경북 영양군의 숙원 사업이자 '교통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인 국도 31호선(입암~영양) 선형개량공사가 본격적인 시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7일 조달청에 의뢰한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의 사업 입찰이 최종 개찰을 완료되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2026년 초에 설계를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영양군의 고립된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국도 31호선 영양 구간 중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 환경이 열악한 영양읍 감천리 구간과 입암면 노달리에서 산해교차로 구간을 비롯하여

청송군 진보면 월전삼거리에서 방전리까지 3개 구간의 총 5.43km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시작되어 2033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106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감천리 구간과 삼산리 구간의 절개사면을 지나는 국도의 선형을 개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구간들은 낙석 위험과 상습적인 도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영양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로 도로, 고속도로, 철도'가 모두 없는 이른바 '3無 지역'으로 불리며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선형개량사업은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로교통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포항시, (주)비케이엠솔과 83억 투자 '맞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합금분말·선재 제조공장 조성

포항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20일 (주)비케이엠솔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제조공정용 금속소재와 고부가가치 선재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주)비케이엠솔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3억원을 투자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합금분말 및 선재 제조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포항테크노파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금속소재 연구개발을 이어오며 차별화된 공정 기술을



포항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주)비케이엠솔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 유치를 위한 서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서현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 최원수 비케이엠솔 대표이사, 강상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확보해 왔다. 특히 고압 가스를 이용해 용융 금속을 미세 입자로 분사하는 가스아토마이징 공정을 적용해 균일한 입도 분포와 높은 구형화율, 우수한 산화 저항성을 갖춘 금속분말을 생산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 전남도, 천년사찰 5곳 명상관광 거점 육성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가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을 세계적 명상관광 거점으로 키우는 전남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로 담양 용흥사·고흥 능가사·장흥 천관사·장성 백양사·완도 신흥사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사찰마다 지역 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전남형 명상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담양 용흥사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차명상, 달피 수바래길 걷기명상, 스님과 차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담양대나무축제 등과 연계해 5~

10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흥 능가사는 '남도 천년사찰, 명상 여행 해봐'를 주제로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와 해변 행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고흥유자축제와 접목, 8~12월 운영한다.

장흥 천관사는 '천관사 마인드 리트릿'(Mind Retreat)을 내걸고 동백숲 걷기 명상 등을 추진한다. 8~12월 관광객을 맞는다.

장성 백양사는 참사람 가행정진, 다도명상, 호흡명상, 사찰음식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백양사예기단풍페스티벌과 연계해 10~11월 운영한다.

완도 신흥사는 정적 명상과 동적 치유활동을 함께 구성했다. 해양치유센터 체험,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과 접목, 6~12월 진행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봉화군, 6개 시군 연계 '미션 챌린지 투어'

외부 관광객 유치 공동 프로젝트

프로젝트다.

봉화군이 중부내륙 지역과 연계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여행과 소비를 결합한 미션 수행 방식으로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봉화군은 영주와 단양, 제천, 영월, 평창과 함께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간 관광 자원을 연계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은 타 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6개 시군을 여행하며 인증사진과 소비영수증 제출 등을 수행해야 한다. 방문 지역 수에 따라 최대 30만원 상당의 특산품이 제공된다. 운영 기간은 11월 29일까지다.

참여 절차는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행 전 온라인을 통해 일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미션 수행 결과와 함께 경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